

반세기만에 드러난 주체미술의 논리와 작품세계

《북한 미술 50년》 펴낸 이구열씨



이구열씨

둘베개/A5변형/336면/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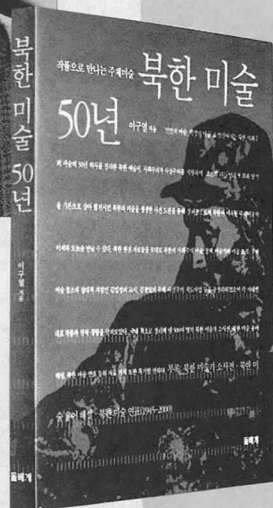
한국근대미술연구소 이구열 소장(69)이 펴낸 《북한 미술 50년》(둘베개)은 1945년 이후의 북한 미술 개론서다. 북한 미술계의 구조와 당 정책, 미술가 양성 과정과 시기별 작품 창작의 실태, 주체미술의 논리, 김정일의 미술 영도 등을 개관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야 본격적인 북한 미술 개론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절로 나올 법하다.

가치판단 배제한 객관적 서술 지향

이소장은 '20세기 후반의 한국 미술사는 반드시 북한을 아울러야 한다'는 평소 신념으로 북한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주로 일본에서 개최된 북한 미술 전시회의 카탈로그나 북한 선전 화보물 등이 주종을 이뤘다. 그러다 1989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북한 문화예술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북한 미술을 연구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원전에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북한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이소장은 국토통일원의 북한자료실과 문예진흥원 예술자료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주체미술 건설》《김정일 미술론》 등의 단행본과 문화예술 월간지인 《조선예술》《문학예술사전》 등을



섭렵했다. 이 책에 부록으로 실린 <북한 미술가 소사전> <북한 미술 용어 해설> <북한미술 연표> 등은 발품을 팔면서 얻은 성과물이다. 이소장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되도록 가치판단을 배제하려 했다. 북한 미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개가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일·김정일 체제 속에서 어떻게 예술이 창작되고 예술작품이 어떻게 사회적 상황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 밝히는 데 주력했다.

“자본주의 미술과 사회주의 미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따지는 일은 차후 문제입니다. 북한 미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북한 미술의 현실을 소개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가치평가는 독자의 몫이겠죠.”

주체미술이 북한 미술의 핵심

이소장에 따르면, 북한 미술은 주체미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주체미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형식에 조선예술의 자주성을 접목시킨 예술양식이다. 즉, 김정일과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모든 예술가들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북한 미술이 남한 미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체제종속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예술가들은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문예정책에 철저히 복무해야 합니다. 개인예술인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체제예술

북한의 주체미술이 반세기만에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구열씨가 펴낸 《북한미술 50년》은 이데올로기적 금제 아래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북한 미술의 총체적인 면모를 밝혔다. 그는 북한 미술이 체제종속적이란 점에서 남한의 미술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미술이 남한 미술에 비해 열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 셈이죠.”

북한 주체미술의 핵심은 '수령형상'이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 영도와 사회주의 건설활동의 여러 모습과 기록을 최대한 이상적으로 표현해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 때문에 조선화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개인창작보다는 공동창작인 집체예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북한미술의 특징이다.

“북한의 조선화는 사실적인 묘사기법이 뛰어나다. 예술적인 깊이나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비록 떨어진다 해도 기교나 열정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벽화나 장식화, 군상 조각 작품 등이 여전히 제작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역량이 집결된 작품이란 점에서 결코 낮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소장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하나 있다. 이 책에 실린 100여점의 그림들은 대부분 평양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인데, 그 가운데 단 한점도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본의 아우라가 제거된 사진이나 복사본이다 보니 작품에 대한 느낌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품을 감상해보고 싶은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다.

“개론서다 보니 개개 작품의 제작과정이나 그림의 감동 등은 생략한 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 미술사도 각론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남북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남북 공동 미술가 사전》 등을 공동집필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박천홍 기자